

터키, 자국 경유 천연가스 공급 크게 증가 전망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시장이자 경유지로 부상한 터키는 희망적인 과거의 예측과는 달리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막대한 공급초과가 확실시되면서 자국을 경유한 서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터키 통계청은 2001년에 GDP가 7.4%, GNP가 9.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비록 이 수치가 발표 전에 전문가들이 추정한 GDP 8% 감소보다 조금 나은 면은 있으나 2001년 4/4분기의 GDP도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002년에 IMF가 전망한 대로 3%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늦어진다면 터키의 가스 수요 전망도 완전히 틀리게 되고 따라서 터키로 공급되는 가스 중 상당 부분이 결국 서유럽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터키의 국영가스회사인 BOTAS는 가스 수요가 2002년에 25% 증가하여 200억 m^3 에 이르고 2005년이면 400억 m^3 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나 전망의 기초는 경제가 활황을 보였던 2000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가스 공급 초과가 50억 m^3 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고 보면, 터키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리스로의 가스관도 수송능력이 연간 5억 m^3 에 불과하여 공급초과 해소에는 멀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가스 수요도 2001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친 20억 m^3 에 불과하여 공급 초과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리스로 연간 30억 m^3 을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도 그리스로 수출하는 양을 60억 m^3 로 늘려 그리스를 통한 서유럽 가스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스는 연간 700억 m^3 의 수요를 가진 이태리로 가스관을 부설하는 계획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공급국들로서도 작년 12월에 터키로 가스 수출을 개시하면서 연간 30억 m^3 의 가스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이란과 이미 터키로의 가스관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올 연말까지 하나를 더 완공하게 되는 러시아가 터키 및 그리스를 경유한 서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다.